

# 여자가 성불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성불하지 못한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해 주 스님



종교와 젠더연구소(소장 옥복연)는 매월 비구니 스님을 만나 현대 여성들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를 듣는다. 불교여성리더의 역할모델을 찾아 비구니로서 교단에 최초로 선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해 주 스님과 첫 만남을 가졌다. 만남에는 종교와젠더연구소 옥복연 소장, 연구원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전나무 불교상담대학원 교수, 이희숙 서울여대 강사가 함께했다. 인터뷰는 4월 2일 동국대 교수회관 해 주(海住)스님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Q 불교여성학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다니면서 승가학과(선학과 전신) 조교를 했을 때 학과장 스님이 새로운 과목 개설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죠. 여성학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불교여성학을 건의 드렸는데, 아무튼 2년 후 불교여성학이 승가학과 2학년 과목으로 개설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불교여성학은 생소한 과목이었습니니다. 학과에서 담당자를 물색했는데 쉽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과장 스님이 막 박사과정

의 안락 속에 여성이 절반입니다.

부처님은 카스트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 종성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귀하고 천함은 그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業)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층민인 수드라(sudra,首陀羅)도 법 앞에서 바라문과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교단에 여성을 출가시켜서 비구니가 되도록 함으로써 평등세계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자가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 깨달아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Q 불교전래 이후 여성성불 불가론을 내세워 깨침을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하면, 비구니팔경계(比丘尼八敬戒)로 비구니와 여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기도 했습니다. 비구니팔경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리사적으로는 그 문제가 2000년 전에 이미 해결되었다고 하겠습니까.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여성 남성 출가자들의 목표는 성불이 아니라 아라한과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라한과

Q 현실적으로 남녀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자 몸으로는 안 되고 다음 생에 남자 몸을 받아 출가를 하고, 성불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여성의 성불 불가론이나 깨달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교단이나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남자가 더불어 어디까지 역할분담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Q 1999년도 종단에 비구니원, 비구니 총림에 대한 요구를 했다. 그 주장이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니다. 그동안 교단내 차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림을 세우고 비구니원으로 종단의 4원 체제를 이루는 방안은 비구니의 수행과 교육, 포교에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했습니다.

Q 중한중법상의 비구니의 위치 등을 비롯해 교단 안팎으로 성차별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요.

원리적이거나 부처님의 교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들 스스로 자기가 맡은 일을 프로답게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비구니 후배 스님들에게도 사자후를 하는 사자새끼가 되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스님은 수행을 프로답게, 전업주부는 살림을 프로답게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힘을 키우지 않고 뛰어들었을 때는 이웃은 물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하다가 장애물이 생기거나 지치면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여자다’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면 여자로서 주어진 일 외에는 하나도 하기 힘들습니니다. 당당히주세요. 보살로서 자리아타행을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저는 모든 여성들에게 제3의 눈, 정안(正眼)을 가지라고 합니다. 제3의 눈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눈이고, 활동분야에서 전문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Q 최근 조계종단은 자성 색신 결사가 진행 중인 5대 결사 중에 여성과 관련한 주제, 성 평등, 교육에 대한 주제가 많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개인적이건 조직적이건 이런 목소리를 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듣는 것 같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뜻을 모아 모두를 위해 진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라는 보살정신의 실천에 다함께 힘을 합쳐야겠습니다. 조계종은 비구·비구니가 똑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또 교육하는 사람도 교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교육조건에서 역할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자세의

## 몸은 남녀가 있지만 불성에는 남녀가 없다 남녀 구분 없이 자기 일에 당당한 ‘프로’ 돼야 재가여성운동 제안 ‘우리모두 다 함께’

을 수료한 저에게 제안하셔서 불교여성학 강의를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1986년 이었는데 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그때까지 비구니 스님이 동국대학 강단에 한 번도 선 적이 없었다) 사부대중 학생들은 진지하고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공도 아닌 과목에 스님이 뛰어들게 된 것은 스님의 전공인 화엄학과의 관계가 깊다. (화엄경(華嚴經))에는 남녀 차별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음뿐더러 여성에게 자비와 청정, 중생을 수순(隨順)하는 덕이 수승해 생불(生佛)하는 특징적인 장점까지 부각시키고 있음을 해 주 스님은 주목해 왔다. 무엇보다 (화엄경)에는 선재(善財) 동자가 만난 선지식을 통해 부처님의 평등세계를 보살행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보살행을 추구하는 선재가 약합한 53선지식 중 21명이 여성 선지식이다. 스님은 여성 선지식의 비율은 물론 해탈 경계로도 남녀 불평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음을 주목했다.

Q 불교가 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셨는지요.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만인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라” 라고 전도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만인

는 비구·비구니 모두 증득한 기록이 있습니다. 석존의 어머니 마야부인(摩耶夫人)의 동생인 마하파사과제 비구니만 해도 아라한과를 증득했거든요.

수행자가 성불한다는 것은 대승불교의 구경과입니다. 만약 여성이 성불하지 못한다고 전제한다면 부파교단에서는 모든 스님들이 성불을 못합니다. 성불할 뜻이 없기 때문이죠.

대승불교 흥기 전후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경전을 살펴보면 2600년 불교사 중 약 100-200년 정도 여성불성불의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승불교 경전에 그 문제는 이미 해결돼 있습니다. 물론 (화엄경)에도 그 답이 있습니다. (화엄경)을 일불승(一佛乘) 즉 일승경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든 수행이 성불로 가는 길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성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성불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성불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공(空)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보이는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 속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대승불교가 시작될 때 이미 이런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몸은 남녀가 있지만 불성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一切衆生皆共成佛道)” 라고 발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사경 및 독송!**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 (한글·한문)**  
해조 역 | 사륙배판 | 전7권 | 전체 1,760쪽 | 65,000원

**우리말 법화경 사경**  
해조 역 | 사륙배판 | 전5권 | 전체 940쪽 | 40,000원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해조 역 | 국판양장 | 630쪽 | 18,000원

**INDIA**  
**한권으로 만나는 인도**

불교가 탄생한 나라,  
한권으로 정리된 인도 이해의 길잡이!  
인류 정신문명의 요람, 종교와 신화의 보물창고,  
방대하고 복잡한 역사를 가진 인도 사회에 대한  
간결하고 핵심적인 안내서!

이병욱 지음 | 신국판 | 310쪽 | 값 13,000원

**지관좌선법을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힌  
모든 수행자들의 교과서!**

천태대사의 『수습지관좌선법』을 알기  
쉬운 현대어로 번역하고, 상세한 주를  
덧붙여 원문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천태 지자대사 지 | 윤현로 역주 | 국판양장 | 276쪽 | 값 13,000원

“불교는 수행을 통해 일반을 증득하기 위한 방법이며, 그 방법은 지와 관을 벗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를 닦으려는 자는 반드시 지관을 수행해야 한다!”

# 사자후를 하는 사자새끼 돼라



(왼쪽부터) 전나미 불교생명대학원 교수, 이희숙 서울여대 강사, 육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문제가거나, 해결해야 할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 면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일의 진행이 어렵다면 동기와 방편에 문제가 없는지 부처님의 근본정신에 비춰보아야 겠지요.

### Q 스님의 자리와 역할이 크게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의 역할과 비구니 스님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비구니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활동영역이 꽤 넓어졌다고 봅니다.

(해 주 스님은 1999년 '한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쓴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 논문에서 중현종법상에 나타나는 권리제이나 차등적 조항을 지적했다. 비구니의 참정권이냐 교단 내 비구니의 지위가 거의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며 비구니 역할론을 대두시켰다.)

Q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세계 빈곤인구, 인권침해 등 여전히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입니다. 소외계층에 밝은 빛이 가지 않고는 '우리 모두 다함께'라는 불교 정신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큰 틀로 이야기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세밀한 부분에서 부딪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교방편을 찾는 데 더 한층 노력해야 되겠지요.

Q 기복적이고 성차별적인 모습이 불교계에 여전한 듯합니다. 일반 사회 도덕보다 뒤떨어진 모습을 볼 때 실망스럽습니다.

출·재가나 종교적, 여성학적인 것을 떠나 생각해 보십시오. 틀에 가두거나 나누지 않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풀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장점,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으로 끌어안는 것은 어떻게요. 그러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까.

Q 여성 불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주의와 불교신앙이 부딪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일이라면 같이 가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보살로서 당당하세요. 불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불교신앙의 기반이 튼튼한 재가여성운동이 필요합니다.

대승보살운동도 부처님의 평등정신을 공으로 펼쳐 보인 것입니다. 불교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방편을 개발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보살도를 펼쳐야 불국도가 이뤄집니다.

바뀌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님과 다르지 않음을 철저히 믿고 그 본래모습대로 살기 위해 발보리심한 여성보살이 돼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몸으로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심고 나누는 여성성전지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해 주 스님은...

1972년 호거산 운문사 입산 성관 스님을 은사로 반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 1977년 동학사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1978년 통도사에서 월하회중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 수지. 1982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1984년 동국대학교 문학석사 취득. 1987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과정 수료

1990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학위 취득. 1994~1996년 동국대학교 비구니 수행원(해광사) 사감(겸 주지). 1994~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1대 제12대 중앙종회 총회 의원 역임.

1994~2001년 대한불교 조계종 교재편찬위원회 위원. 1997년 Center for of World Religions, Harvard University, U.S.A Senior Fellow. 1997~2002년 대한불교조계종 기초 교육개혁 위원. 2000~2004년 불교학연구회 초대. 제2대 회장. 2003~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감사. 2005~2008년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역경위원회 위원 역임.

1990~2011년 현재 수미정사 주지 및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중앙승가학원 법인이사 맡고 있다. 저서로는 <화엄의 세계> (의상화엄 사상사연구) <불교교리 강좌> 등 다수 있다.

###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 상락아정

지난 주말 오랜만에 지방에 갈 일이 있었다. 상춘(常春)의 의미를 맘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느 곁에 생명 있는 것들은 이제 차려져 고리를 고이 접어두고 대지 위에 아담받아 자리 잡고 각기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봄은 눈을 즐겁게 하는 계절인가 보다. 산천에는 물감을 뿌려 놓은 듯 꽃이 만개했다. 아니 눈만 즐겁게 하느냐고 섬섬해 할 까봐 귀를 즐겁게 하기도 한다. 새들의 노래 소리다. 저 소리는 가히 천상의 소리요, 인간이 범접하기 어려운 화음이기도 하다. 도회지에서 길을 걷거나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맞는 문밖내는 더욱 아니다. 그렇다고 값비싼 화장품의 코를 찌르는 듯한 향수도 아니다. 자연의 향기, 이는 분명 코를 즐겁게 한다. 또한 육신의 근육을 단련하고자 휘이휘이 산을 오르는 습관에서 신체의 강건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즐거움을 느낄까. 절기 때라 유행 따라 같이 입는 새 옷에서 순간의 즐거움을 느끼듯이 느

반경'이라고 떼어 읽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 반열반경'이라고 읽어야 바르게 읽는 게 된다. 왜냐하면 반열반이란 말이 있기 때문이다. 반열반을 pari-nirvana라고 한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완전히 끄다'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윤회의 완전한 정지'를 나타낸 말이기도 하다.

인도의 전통 바라문에서는 절대적인 실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영혼'이라고 하고 있다. 이 영혼아가 천지우주를 만들었으며 자기 마음 가운데 있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모두 인간이 제 멋대로 추정하여 생각한 존재이다. 이러한 고정된 사고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부처님은 삼범인의 가치를 높이 들었다. 제행무상·제법무아·일체개고이다.

안아비실신의가 각각의 대상을 만나면 뽀뽀이 자기 장단에 맞추어 놀아난다. 대상은 사물일 수도 있고 절기일 수도 있고 사유작용에서

## 삶의 진미 고삿에 두고 해매고 있는가 안락... 우주·자연·생명의 소리안에

끼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해답을 제시한 부처님 말씀이 있다.

부처님이 입멸에 즈음해 설한 경전이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이다. 경 권2에서 상락아정이란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상(常)이란 상주불변 한다는 뜻이다. 열반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멸이나 변화가 없는 덕을 구비함을 나타낸 것이다. nitya라 하여 '본래적'이고 '영속적'이란 말이다.

낙(樂)은 안락이란 말이다. 생멸이나 변화가 없는 세계에는 생사를 만나는 고도 없고 걱정 무위한 안락의 덕을 구비한 것이다. Sukhara하여 '행복하고 순수롭다'는 말이다.

아(我)란 진아를 말한다. 진아는 망집의 나를 떠난 무애자재한 본성의 덕을 구비하고 있다. aham 이라하며 ah '말하다', '표현하다'이고 aha는 '확실하게', '분명하게'라는 뜻이 된다. ah와 am을 합해보면 '내가 말하는데 있어서...'의 의미를 지닌다. '자아'이고 '우주적인 대아'를 말한다.

정(淨)은 청정하다는 뜻이다. 즉 번뇌망상의 더러움을 멸각한 청정무구의 덕을 구비한 것이다. subhara 하여 상서로운 성수(犀牛)를 말한다. 우리말로 미리내이다. 아야 은하계에는 작은 티끌하나 없는 모양이다. 다수의 독자들은 <대반열반경>을 '대반 열

나타나는 가지가지의 형상일 수도 있다. 마음이 될 수 있는 곳, 마음이 안락을 얻을 수 있는 절묘한 방안은 상락아정의 바른 증득에서이다. 항상 꽃피는 봄이 있고 열락(悅樂)의 새들이 노래하는 곳은 바로 발밑에도 있고 손끝에도 있다. 혹시 우리는 삶의 진미를 바로 고삿에 두고 힘겹게 찾아 해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자신을 외경(外境)의 경매시장에 내놓고 험값에 팔아넘기고 살지 않는가. 외경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없는가. 마음 작용은 무한대로 방심을 허용한다. 아야 마음같이 방대한 작용도 드문 듯하다. 항상 챙기고 추스르는 작용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내 망심의 노예가 되고 만다. 아침 햇살이 좁은 궤방 사이를 헤집고 들듯이 망심을 투과시켜야 한다.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를 들어 본다. 태고의 소리도 아니요 나의 습결도 아닌 그렇다고 당신의 습결도 아니다. 우주의 소리다. 자연의 소리다. 엄마 품을 나온 햇방아리가 낫은 햇살을 쬐어대고 있는 소리 또한 우주의 소리다. 생명의 소리다.

자연은 절대로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변의 법칙을 확인한 주말의 여정이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

#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 종 정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정사서: 석운오, 박선혜화)

원로회회장 석홍섭 대종사  
승정원장 석원정 대종사  
총무원장직대 석혜오  
사정원장 석현중 대종사  
총무부장 석능현  
포교부장 석혜통  
교무부장 석성오  
행사부장 석영오

원로부회장 석무공 대종사  
총회의장 석법일 대종사  
호법원장 석원명 대종사  
포교원장 석혜운 대종사  
호법부장 석대연  
부원장 석운오  
부원장 석대명  
1국장 석대덕

원로부회장 석만월 대종사  
기획원장 석법상 대종사  
감찰원장 석다우 대종사  
법배교육원장 석무겸 대종사  
감찰국장 석법진  
재무부장 석도현  
의전부장 석근홍

호계원장 석월오 대종사  
문화원장 석지명 대종사  
문화부장 석혜주  
부원장 석법오  
2국장 석해인

### <교구총무원>

부산총무원 석정은  
창원총무원 석법일

김해총무원 석청해  
진주총무원 석덕오

### <비구니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장 석청명

부원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해안 석혜운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 <중앙위원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대심행)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전국신도회총무 김나연 (혜정화)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종립예술위원장 조영선 (무혜심)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 입종 안내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중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 범음법배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어서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